資 料

사우디아라비아 및 아르헨티나의 肥料需給 動向

編輯者 註 :

本 資料는 大韓貿易振興公社 現地 貿易館의 最近 調査報告書에 依한 資料이오니 業務에 參考하시기 바랍니다.

1. 사우디아라비아

가. 비종별 생산 및 수급동향

사우디의 비료생산회사로서 국영기업체인 (PETROMIN) 산하에 The Saudi Arabian Fertilizer Company (SAFCO) 가 있으며 동 회사는 요소비료를 생산하며 1975년 생산실적은 217,000톤에 달하므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24%가 증가하였고 1976년도 생산량은 250,000톤에 달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동 공장은 사우디의 석유생산지역인 동부지역 (담맘) 에 소재하고 있으며 국내수요뿐만 아니라 이란 등지에 수출도 하고 있다. (통계미비로 금액은 확인불능) 사우디의 현 경작면적은 전국토의 0.2%인 100만 에이커 정도로서 1975년 국내 소비량은 12,300톤이었으며 이는 1974년에 비해 85%나 증가하였다. 한편 1976년에는 20,000톤에 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와같은 현저한 증가는 정부의 농업진흥책의 일환으로 비료구매 대금의 50%를 정부에서 보조하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나. 전기와 같이 농경지가 적어 국내생산 요소비료를 수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비료수입은 하지 않고 있다.

2. 아르헨티나

① 비종별 생산 및 수급동향

현재 아르헨티나의 비료생산 규모는 년산 약 5만톤 규모에 불가하는 미미한 규모이며 수요 역시 극히 미미하여 동 규모로서도 국내 수요의 40 ~ 50%의 충족을 기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비료생산 동향

단위 : 톤

	72/73	73/74	74/75
질소비료	36,435	29,933	48,195
인산비료	9,083	4,080	3,457
카리비료	-	-	-

자료 : 아르헨티나 농목성 제공

비료의 생산업체는 질소질비료를 생산하는 회사가 1개업체가 있고 국내산 혹은 외국산 각 비료를 혼합하여 판매하는 회사가 2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카리비료는 전혀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르헨티나의 비료수요규모는 질소질 약 10만톤, 인산질 5만톤 및 카리질비료가 1만톤 등 규모인데 질소질의 경우엔 40-50%의 국내수요를 자국산으로 충족시킬 수가 있으나 인산 및 카리질비료는 거의 수입에 의존한다.

대 농업국이나 광활한 영토를 윤작을 통하여 토질을 유지하는 관계로 아르헨티나의 비료수요동향은 대체로 안정적인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년도별 비료수요동향

단위 : 톤

	72/73	73/74	74/75
질소비료	130,404	124,618	88,031
인산비료	58,353	35,210	53,256
카리비료	13,302	22,299	10,575

자료 : 아르헨티나 농목성 제공

비록 윤작을 한다해도 토양이 점진적으로 쇠퇴해가고 있어 현 정부의 중점적 농업진흥책과 비료사용권장 등으로 인해 수요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② 수입동향 및 수입가격동향

전기한 바와 같이 비록 수요규모는 적으나 절대량이 국내 충당이 되지않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정부는 적은 규모나마 현존하는 국내 비료생산업계의 채산성 및 시장확보를 보장하기 위하여 일단 국내업자의 생산량을 총 수요에서 제한 부족량만이 수입을 허가하되 동 수입량 역시 실수요자

수입쿼터를 먼저 배정한 후 일산 비료판매상에게 잔여액의 수입을 허용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비료의 수입동향

단위 : 톤

	72/73	73/74	74/75
질소비료	94,029	94,686	39,237
인산비료	49,270	31,130	49,897
카리비료	13,202	22,299	10,575

자료 : 아르헨티나 농목성 제공

인산비료 및 카리비료의 수입은 완전히 개방되어 있으나 전기한 바와 같이 질소비료의 경우엔 국내생산량을 총 수요에서 뺀 잔여량의 수입만을 허용하는 실정이다.

수입가격동향은 질소, 인산, 카리질 비료에 따라 또한 같은 비료라도 성분에 따라 수입가격을 달리하고 있어 BTN별 년도별 수입가격 동향을 보면

비료의 톤당 수입 가격 동향

단위 : 미불

B T N	74	75	76 (1-11)	비 고
31 020100	193	249	219	
31020201	200	415	182	
0202	1,002	410	758	
0203	213	320	175	
0204	-	933	1,234	
0205	183.5	294	795	
0212	124	-	-	
0213	146	383	146	
31030201	125	195	98	
0202	112	125	-	
0210	268.8	333.4	216	
31040201	455.2	822	186	
0202	288	212	275	
0204	85	-	98	

자료 : 아르헨티나 국립통계국 (INDEC)

이상과 같은 년중 평균수입가격을 나타내고 있는데 품목에 따라서 심한 가격변동을 보여주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BTN 31020202와 31020204 질소질비료와 카리비료중 BTN 3104021O1이 가장 심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③ 수입관리제도

전기한 바와같이 아르헨티나 정부는 국내생산 비료의 수요보장 및 기업채산성 확보를 위하여 총 수요량의 부족분을 우선적으로 실수요자를 대상으로한 수입허가를 하며 부족분에서 실수요자 수입 허가분을 제한 나머지 량이 일반 시중 판매를 위해 수입상에 의해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생산이 전혀없는 인산, 카리질 비료의 경우엔 이런 제도를 적용치 않으며 농업장려의 간접적인 지원책으로 비료의 실수요자 수입분은 특별히 관세상 특혜를 부여하여 종전에 수입을 엄격히 규제하던 (76년 11월 이전) 때에도 질소질 비료중 BTN 31020100은 무관세로 도입했으며 인산, 카리비료등도 모두 무관세로 도입되었으며 현재도 동 제도를 계속 적용하고 있다.

또한 수입관세는 전기한 무관세품목을 제외하고는 거의다가 5% 수준에 있으며 수입관세 이외에 통계세 3% 부가가치세 (통관시에) 16%를 부가하도록 되어있다.

④ 비료의 수출 경쟁국 동향

아르헨티나가 가장 많이 수입하는 질소비료의 주요 수입 대상국은 칠레, 이태리, 서독 3국이며 인산 비료의 경우는 미국, 우루과이, 폴랜드, 불란서, 카리비료는 미국, 서독, 불란서

등 제국으로 알려져 있다.

년도별로 주요 수입대상국중 1, 2, 3위국을 보면,

질소질비료의 경우. 73년 1위국 칠 레 (수출량 10,810톤)

2위국 이태리 (〃 7,200톤)

3위국 서 독 (〃 4,597톤)

74년 : 1위국 칠 레 (〃 23,140톤)

2위국 이태리 (〃 17,800톤)

3위국 서 독 (〃 1,769톤)

75년 : 1위국 칠 레 (〃 6,330톤)

2위국 서 독 (〃 4,332톤)

3위국 이태리 (〃 500톤)

등으로서 초석을 많이 생산하기로 유명한 칠레가 압도적으로 수출 1위국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73-75간에 칠레, 서독 이태리 3국이 계속 수위 수출국 위치를 점하고 있다.

한편 인산비료의 경우에는

73년 : 1위국미 국 (수출량 15,631톤)

2위국우루과이 (〃 13,670톤)

3위국모로코 (〃 9,050톤)

74년 : 1위국우루과이 (〃 19,830톤)

2위국미 국 (〃 8,049톤)

3위국폴랜드 (〃 4,079톤)

75년 : 1위국 멕시코 (수출량 8,200톤)

2위국 미 국 (" 4,998톤)

3위국 불란서 (" 3,150톤)

으로서 우루과이, 미국이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카리비료의 경쟁수출국 동향을 보면,

73년 : 1위국 미 국 (수출량 16,557톤)

2위국 서 독 (" 4,121톤)

3위국 벨 기 (" 675톤)

74년 : 1위국 미 국 (" 6,289톤)

2위국 이스라엘 (" 4,769톤)

3위국 독 일 (" 3,856톤)

75년 : 1위국 이스라엘 (" 2,000톤)

2위국 미 국 (" 1,500톤)

3위국 불란서 (" 1,200톤)

으로서 이스라엘이 74년 이후부터 주요 카리비료 수입대상국으로 발돋움하였다.

⑤ 수입상 명단 및 수입관장 기관명

수입상 LARROCCA Y CODA S.R.L (명칭)

H.YRICOYEN 299

ESCOBAR ARGENTINA (주소)

S.ANDO Y CIA SACIF

DEFENSA 540

BUENOS AIRES

혼합비료 생산업체(외국산 원료도입하여 혼합함)

AGROMAX SAIC

BELGRANO 1580 5ºP

BUENOS AIRES

INDUSTRIAS ACROFERT S.A

SARMIENTO 320 4ºP

BUENOS AIRES

LABORATORIO IND.KOLTEX S.R.L

FCO BILBAO 5840

BUENOS AIRES

관장기관 : SECRETARIA DEL ESTADO DE LA AGRICULTURA

(농목성)

⑥ 국산 비료의 비종별 수출가능성 및 대책

수입동향에서 기술된 바와같이 질소질비료 년 평균 10만톤 인산비료 5만톤 카리비료 1만톤 상당의 수입은 최저규모이며 점차 증가될 전망이므로 수출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실 수요자를 위주로한 비료수입쿼터의 우선 배정과 잔여량의 수입업자에 대한 배당(질소질의 경우) 등 나머지 인산, 카리비료 수입에 대해서는 전혀 통제가 없는 관계로 수입업자를 대상으로한 홍보활동이 동 수출가능성 확대에 우선 요망되는 대책이다.

전문 세일즈맨의 파견을 통한 대 실수요자와 수입업자를 상대로 한국산 비료수입을 권유하고 현지의 각종 비료 재크 현황등을 신속히 파악하여 국내 부족분을 충족토록하여 가능한한 현지 에이전트를 지명하여 적극적인 판매망 조직이 필요하다.

특히 아르헨티나와 같이 농업이 대규모적으로 기업화된 경우에는 실수요자에 의한 수입규모가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므로 현지 에이전트를 통한 혹은 전문 세일즈맨의 상주 활동을 통한 판매망의 구성이 시급하며 이러한 방법이 한국산 비료 수출 시장 개척에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사료된다.